

개학 연기 초중고 '온라인 수업' 효과 주목

과목단위 수업 이미 도입... 고교학점제 시행 땀 수효 늘 듯 교사·학생 상호작용엔 한계 ...공동 교육과정 기반 조성해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수업결손 보완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교육부는 개학이 3주 늦춰지며 발생한 수업결손의 보완 대책으로 미래형 온라인 교육서비스인 온라인 수업을 내놨다. 특히 개학 연기 2주를 맞는 이번 주부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e학습터'나 EBS의 '온라인 클래스'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예습 거리를 내주고 피드백해주는 '온라인 학급'을 구축·운영한다.

◇학생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방식=이번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에게 이미 익숙한 수업방식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여러 온라인강의사이트에서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이른바 '1타 강사'의 온라인 수업을 골라 들으며, 자신

만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일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교육계는 입시 준비를 위해서가 아닌 중·고등학교 수업을 대체하기 위한 온라인 수업이 도입될 때를 2012년으로 본다.

교육부는 2009년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면서 학교를 옮기거나 편입한 학생은 학교별로 집중이수 과목이 달라 일부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가 적어 학교마다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하고자 2012년 2학기 '과목 단위 온라인 수업'을 도입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온라인 수업은 더 활성화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마이스터고에서 시작해 2025년 전 고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수업보조 방식으로 '한계'=하지만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위해선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수업이 교육과정에 맞춰 단계별로 학습하며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양질의 수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청별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활용목적도 상이하고, 수업 이수 기준 또한 다른 점도 해결할 문제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대부분 학교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은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본격적인 개념의 '온라인 공동교육' 시스템으로 보기보다는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 보완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학교를 옮기거나 편입한 학생이 학교별로 집중이수 과목이 달라 일

부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생이 적어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선택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는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 활용하고 있다.

그나마 수업 이수 기준 또한 달라 2018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서울 등 10개 시도에는 정해진 진도의 3분의 2 이상을 들으면 이수로 인정하지만 인천 등 5개 시도는 진도율이 70% 이상, 강원은 80% 이상, 부산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서울 등 10개 시도는 과제가 없는 반면 전남과 부산 등 7곳은 정해진 진도율을 충족하는 것 외에 과제를 요구한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학 연기가 불가피한 조치지만 의도치 않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온라인을 통한 학습효율 향상은 물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업 지원을 위한 학교 공간 마련 등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청년창업농 양성, 인큐베이션 팜 시대 선도

스마트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농림부 실습장 지원사업 선정

전남대학교가 청년창업농을 양성하는 인큐베이션 팜 시대를 연다.

전남대 SMART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단장 한태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0년 농업계 대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대학생 예비 청년창업농 양성사업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영농창업사업단은 올해 용봉동 캠퍼스 장미포 부지에 청년창업농 희망 학생들의 인재를 돕기 위한 경영실습 농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대형 비닐하우스 4동과 노지 채소를 위한 공간도 함께 조성하기로 했고, 창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전남대는 이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학교 인근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 '창업발전소'라고 이름 짓고, 청년농부들이 자치공간으로 쓰도록 했고, 광주시도 대응자금 지원과 함께 인큐베이션 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개척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전남대 SMART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은 2016년부터 매년 24명의 예비 청년창업농을 선정해 실습교육과 더불어 실습학기제(8주), 해외 선진지 연수(13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왔다. 또 이들은 '플랜트 빌리지'(PLANT VILLAGE)라는 상표를 개발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3년째 정부 일자리사업 광주 복구와 진행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일자리 공모사업 수행을 통한 창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강대 창업지원단(단장 박경우)은 광주 복구에 손잡고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공모사업을 수행한다.

우선 행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Youth! Dream Uncover 창업 지원' 분야를 통해 광주복구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예비 CEO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또 동강대는 고용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Hidden idea 발굴을 통한 지역창업 지원 사업'을 펼친다. 동강대는 고용부 사업의 경우 호남·제주권에서 유일하게 2018-2019년 2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용부 사업은 지난해부터 전 연령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30-49세 장년층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4월17일까지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캠퍼스 전역 방역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직원 사회봉사단은 9일 전문 방역업체와 함께 강의실, 도서관 등 캠퍼스 전역을 방역했다. 직원 사회봉사단은 건물의 책임자를 지정해 조별로 건물 내·외부 화장실, 손잡이, 책상, 엘리베이터 버튼 등 모든 비품 및 시설물을 날마다 소독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광주·전남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전국 최상위권

리얼미터 조사, 장석웅 교육감 1위·장휘국 교육감 3위

광주와 전남 교육감이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9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론조

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민선3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2020년 2월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장석웅 교육감이 58.6%의 지지를 얻어 지난해 5월 이후 10

개월째 1위를 차지했다.전월(53.7%)보다 4.9%포인트 올랐고, 2위(51.1%)보다 7.5%포인트나 높았다.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수업혁신과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등 혁신드라이브가 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장 교육감은 1년여 전까지만 하더

라도 직무수행 지지도가 40% 안팎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지난 1월 7위에 이어 2월 4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만 7000명(시·도별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도별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2%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권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역인재 취·창업 활성화 나선다

호남권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인재혁신개발 취·창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호남권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단장 조성용)은 최근 여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업무협의를 갖고,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취업과 지원 및 제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이 추진하는 지역인재혁신개발 사업은 대학생 창업 아이템의 판로를 개척해 지속가능한 창업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링, 컨설팅, 상품화, 시장진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대학생 취·창업 캠프, 협업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창업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보건대,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기관 선정

광주보건대학교(총장 정명진)는 최근 광주시의 2020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보건대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중 어린이집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실시, 오는 9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주 동안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은 어린이집 원장 직무와 관련된 인성 및 전문적인 자질을 형성하고 향상시킴으로써 보육전문가로서의 역할 등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무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